

자산 반토막 ... '생존 기로'에 선 저축은행

광주·전남 6곳, 수도권 대형사·신협 등 도전 거세

가계대출 고금리 서민 불만 ... 유형자산 매각 등 시급

광주·전남 지역 저축은행들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4년만에 자산이 반토막 났고, 수도권 대형사와 신협 등 지역 내 제2금융권의 거센 도전을 받아 생존의 기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의 경영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본점을 둔 대한·동양·더블·스마트·센트럴·골드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조1937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47.2%나 감소했다. 전국 평균(447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업체당 자본규모도 2010년 193억원에서

지난해 92억원으로 줄어 전국 평균(530억원)을 크게 밑돌았고 인천·경기(19개, 478억원), 부산·경남(12개, 299억원), 대전·충남(7개, 229억원)에도 크게 못미쳤다.

이처럼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은 지역 저축은행 총자산의 47.7%(2010년 기준)을 차지하던 보혜저축은행이 2011년 2월 영업정지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8월 대규모 영업 부실이 발생한 골드브릿지의 자산이 감소한 탓도 있다.

지정설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도전도 거세져 지역 저축은행들의 지점은 4년 새 4개 줄어든 반면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둔 대형 저축은행의 광주·전남 지점 수는 5개에서 11개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말 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유동성 비율도 증가하긴 했으나 연체율은 22.2%로 전국 평균(14.7%)을 크게 웃돌았고, BIS자기자본비율은 9.0%로 전국 평균(14.0%)에 크게 못미쳤다.

고객예금의 대출점도를 나타내는 예대비율도 지난해말 7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금융기관의 고유 수익원인 순이자수익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총대출 중 가계대출은 2011년 29.2%에서 지난해 말 48.5%로 크게 증가해 전국 평균(35.4%)보다 높은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66.0%에서 49.6%로 급감해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증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또 증가한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5.1%로 전국 평균(11.6%) 및 여타 권역(9.3%~11.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21.4%로 중소기업 대출금리(연 9.2%)보다 높았다. 전국평균(18.0%)에 비해서도 4.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유형자산 매각과 신규 대출 대상 발굴, 연체 관리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전성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생존기로서 있는 지역 저축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형자산 매각하는 등 자산 재조정과 함께 가계에 집중하고 있는 자금유용 대상에 소상공인 등 지역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소득 작목 '대촌 청양고추' 선별

26일 광주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 풋고추 공선출하회 회원들이 특산물 청양고추를 선별하고 있다. '매운 맛'이 제격인 대촌 청양고추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300억원의 소득을 안겨주는 고소득 작목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엔저 빨간불 ... 기업 절반 "수출피해 입었다"

철강·기계·음식료 順 대한상의 300곳 조사

선박용 엔저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중인 전북의 A기업. 연간 30억원에 이르던 일본 수출액은 최근 14억원까지 떨어졌다. 과거만 해도 kg당 2달러 가격을 쳐 줬는데, 수개월 전부터 1.7달러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1.3달러까지 가격을 깎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 기업 관계자는 "엔저가 계속되면서 일본 조선사들이 우리보다 자국 협력업체로 거래선을 갈아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엔저 빨간불'이 켜졌다. 원엔 환율이 이미 갈수록 수치를 넘어섰다는 기업들의 반응이 나온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과 경합하는 수출기업 300여 개사를 상대로 엔저 대응과제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55.7%)이 엔저로 수출 피해가 났다고 답했다. 큰 피해는 21.0%, 약간 피해는 34.7%, 거의 피해 없음이 36.7%, 전혀 피해 없음 7.7%였다.

'거래시 감내할 수 있는 엔화환율'을 묻자 평균 924원이라고 답했다. 원엔 환율은 지난 22일 기준 903원이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963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956원), 기계(953원), 음식료(943원), 자동차·부품(935원), 조선·기타(922원), 반도체(918원) 순이다. 이들 업종은 이미 갈수록 선 아래로 엔화가 떨어질 셈이다.

사진용 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광주의 한 기업은 "일본에는 거래처 유지를 위해 마진 없이 팔고 있다. 20%가량의 수출 감소를 겪고 내린 결론은 5% 가격인하"라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과거 엔고시대의 일본기업처럼 원고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3.50 (-2.60)
- ▼ 금리 (국고채 3년) 1.85% (-0.03)
- ▼ 코스닥 708.66 (-4.88)
- ▲ 환율 (USD) 1101.00원 (+10.90)

갤럭시S6 엡지 아이언맨 에디션 나왔다

오늘부터 1000대 한정 판매

삼성전자가 27일부터 '갤럭시S6 엡지 아이언맨 에디션'을 국내에서 1000대 한정 예약판매한다.

이 모델은 마블사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아이언맨 슈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전·후면에는 강한 레드 컬러를, 측면 테두리에는 골드 컬러를 입혀 아이언맨의 갑옷과 흡사한 디자인을 연출했다. 특히 후면에는 금속 아이언맨 마스크와 함께 0001부터 1000번까지 한정판(Limited Edition) 일련번호를 새겨 소장가치를 더했다.

메모리 용량은 64GB이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은 기존 갤럭시S6 엡지와 같다. 국내 3개 이동통신사 모두 출시한다. 기본 구성품과 함께 아이언맨의 상징인 아크 원자로 모양의 무선 충전기, 삼성전자 정품 클리어 커버가 포함된 특별 패키지 형태로 구성될 것도 눈에 띈다. 판매가는 119만



9000원이다.

예약 판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www.samsung.com/sec/shop/)에서 선착순 1000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배송은 이달 말부터 차례로 이뤄진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한전KDN, 양방향 소통 프로젝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ICT 전문기업인 한전KDN이 최근 실시간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전KDN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실시간 공정 관리뿐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자 간의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또 품질관리와 관련된 수작업 대부분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돼 비부가가치 업무를 40%가량 줄일 수 있고, 업무

표준 준수도 71% 향상, 사업수행 경험 100% 재활용 등 업무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프로젝트 품질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품질성과가 다양한 실적과 연계될 전망"이라며 "회사 미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에탁결제원, 중기·벤처기업 대상 상장 실무 교육

한국에탁결제원 광주지원(지원장 정성철)은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2강의실에서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제도 설명 및 증권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담당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전자단기사채제도, 주총·증자·배당 등 증권실무 및 상·중·증여 등 증권관련 세제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재 및 참가비는 무료이며 27일까지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한국에탁결제원 광주지원(062-369-4733)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북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창중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용타타버리 취급원을 귀 총판에서 모칭하고 있습니다. (마베, 발미칠, 칸타타 등 워메스아이 지점들 받으신 모든 청주님)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